

2021년 초등학교 건강보험 제도 교육자료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교육자료 활용 요청

202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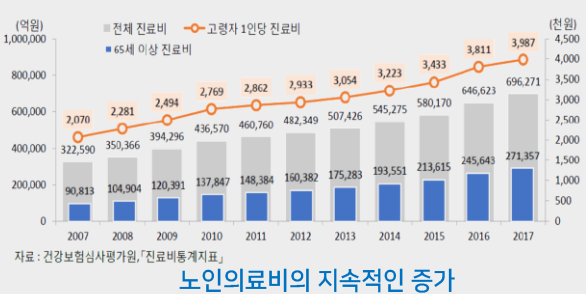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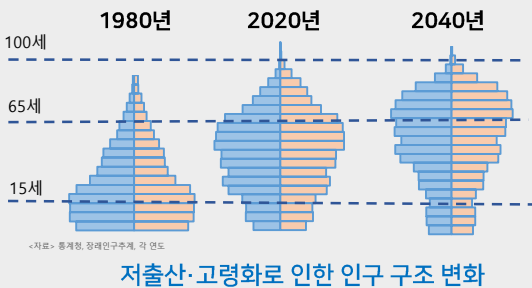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제도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 우수성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코로나 검사·치료비 지원(건강보험 80%, 국가 20%)으로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도(87.7%)**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의 위기 - 저출산·고령화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계층(중장년층)은 적어지는데 수혜계층(노년층)은 점점 늘어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노인의료비 증가가 지속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건강보험 인식 부족

이에 미래세대의 건강보험 인식은 점차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건강보험 인지도 조사^①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의 건강보험 **제도 인지도는 39.4%, 학습 경험은 27.8%**에 불과합니다. 또한 MZ세대 인식조사^②에서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입사 후 제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자료 활용 필요

따라서 사회적 관념을 형성하는 초등학교 시기에 '**국민건강보험 제도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들도 높은 학습 의향(72.8%)을 가지고 있고, MZ세대도 '**학교에서부터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Z세대 40.2%, M세대 29.9%)**'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현업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제도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인지**하게 된다면 지속 가능한 제도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①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소년 건강보험 인지도 조사 2020.12.

② 건강·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 2020.12.

(붙임) 국민건강보험 제도 소개

제도 개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															
근거 법령	헌법 제34조 “사회보장·사회복지”, 제36조 “보건권”,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주요 연혁	<table><tr><th>연도</th><th>내용</th></tr><tr><td>1977</td><td>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td></tr><tr><td>1989</td><td>전국민 의료보장 실현</td></tr><tr><td>2000</td><td>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td></tr><tr><td>2008</td><td>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td></tr><tr><td>2011</td><td>사회보험 징수 통합</td></tr><tr><td>2018</td><td>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td></tr></table>	연도	내용	1977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1989	전국민 의료보장 실현	20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011	사회보험 징수 통합	2018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연도	내용															
1977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1989	전국민 의료보장 실현															
20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011	사회보험 징수 통합															
2018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적용 대상	5,134만명('20년) ... 의료급여 제외한 전국민 가입															
제도 특징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의무 가입</td><td>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가입</td></tr><tr><td>형평 부과</td><td>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 차등 부담</td></tr><tr><td>균등 수혜</td><td>보험료 부담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보험급여 제공</td></tr><tr><td>납부 및 징수의 강제성</td><td>보험료 납부 의무 존재, 보험료 징수 강제성 부여</td></tr><tr><td>단기보험</td><td>1년 단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을 국민 의료비로 지출하는 구조</td></tr></table>	구분	내용	의무 가입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가입	형평 부과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 차등 부담	균등 수혜	보험료 부담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보험급여 제공	납부 및 징수의 강제성	보험료 납부 의무 존재, 보험료 징수 강제성 부여	단기보험	1년 단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을 국민 의료비로 지출하는 구조			
구분	내용															
의무 가입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가입															
형평 부과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 차등 부담															
균등 수혜	보험료 부담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보험급여 제공															
납부 및 징수의 강제성	보험료 납부 의무 존재, 보험료 징수 강제성 부여															
단기보험	1년 단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을 국민 의료비로 지출하는 구조															
주요 통계	<div><div><div>건강보험 보장률 지속 상승</div><table><caption>건강보험 보장률 지속 상승</caption><thead><tr><th>연도</th><th>중증·고액 30위 질환 (%)</th><th>전체 (%)</th></tr></thead><tbody><tr><td>2016년</td><td>77.3%</td><td>62.6%</td></tr><tr><td>2017년</td><td>79.5%</td><td>63.0%</td></tr><tr><td>2018년</td><td>80.5%</td><td>63.5%</td></tr><tr><td>2019년</td><td>81.3%</td><td>64.2%</td></tr></tbody></table></div><div><div>보험료 대비 급여비('19년)</div><p>58세 이상부터 월보험료(129,372원), 월급여비(130,082원)으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액이 더 크게 나타남</p></div></div>	연도	중증·고액 30위 질환 (%)	전체 (%)	2016년	77.3%	62.6%	2017년	79.5%	63.0%	2018년	80.5%	63.5%	2019년	81.3%	64.2%
연도	중증·고액 30위 질환 (%)	전체 (%)														
2016년	77.3%	62.6%														
2017년	79.5%	63.0%														
2018년	80.5%	63.5%														
2019년	81.3%	64.2%														
주요 성과	<div><div><div>평균 기대여명 향상</div><p>1977년 64.7세 → 2019년 83.3세 (OECD평균 81세)</p></div><div><div>의료비 중 가계직접 부담 비율</div><p>1977년 86% → 2019년 30.2%</p></div></div>															

